

# 안동권문의 성지 능동 성역화 사업과 문화유산

안동은 안동권문의 영원한 본향이다.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기도 하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에 시조 태사공의 묘소는 위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조 태사공의 묘소가 자리한 능동은 안동권문의 성지이다.

우리 후손들은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유적과 기념물 등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등 성지를 성지답게 가꾸고 관리해야 한다. 능동재사(凌洞齋舍)는 국가민속문화재 제183호로 1984년 1월 14일 지정되었다. 권태사신도비(權太師神道碑)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3호로 1985년 8월 5일 지정되었다. 안동시내에 있는 안동태사묘(安東太師廟)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15호로 1974년 12월 10일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조 태사공과 관련된 유적과 건조물 등은 모두 국가민속문화재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및 기념물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셈이다. 시조 태사공의 역사적 위상이나 1천년이 넘는 시조 태사공의 묘소나 묘역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시조 태사공

관련된 건조물이나 사우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만을 검토해 보더라도 시조 묘소는 당연히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시조 태사공 묘소나 묘역 그 자체는 아직까지 국가문화재나 경상북도 기념물 또는 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된 바가 없다. 심지어 안동시 향토문화재로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안동권문에서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 지정을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청했으나 관계기관에 의해 위축된 문화재심의위원회들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문화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어띠한 결격사유로 인해 지정되지 못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경상북도의 정책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능동 성역화 사업은 시조 태사공 묘소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3세에서 9세 선조들의 단소 마련과 비석 건립도 마찬가지이다. 안동권문의 성



청도 낭중공 직사각형 단소 앞에서 추향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사진3)

지인 능동을 성역화하기 위해서는 단소와 비석 자체가 100년 후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시적 안목에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낭중공 단소도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 등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본래 청도에서 설단(設壇)했던 방형묘제(方形墓制)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방형묘제는 고려적 묘제 양식이고, 낭중공은 고려시대 인물이며 청도에서 이미 방형으로 설단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시도(市道) 지자체에서는 어떤 유적과 유물 등에 대해 지방문화재 등으로 지정할 시에는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지정 대상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때 낭중공 단소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단연 고려의 묘제 양식의 가능성이 높후하다. 고려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문화재 지정 절차는 시도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에 신청하고 있다. 행정 당국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고려적 묘제 양식을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아 시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묘소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서희의 직사각형(방형方形) 묘소(사진1)를 볼 수 있다. 서희장군 아버지 서필(901~965)의 묘소(사진2)도 방형묘제 양식이다. 낭중공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인 서희(942~998)의 묘소는 1977년 1월 13일 경기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문화유산 검색\_유형분류\_무덤)에는 서희 장군의 묘소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 "봉분 아래 2단의 돌레석을 두른 형태이다..... 묘역은 전체적으로 3단으로 되어 있으며 고려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낭중공의 단소(사진3) 역시 서희장군

고 평가받는 일두(一壙)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묘(사진9) 역시 방형의 구조를 띠고 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268호로 지정(2008.2.5.)되어 있다. 조선 초기 문신이며 대학자였던 신재(慎齋) 주세봉(1495~1554)의 묘(사진10) 또한 방형의 구조이다. 주세봉은 중종 17년(1522)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중종 36년(1541)에 풍기군수가 되었고 중종 38년(1543)에는 풍기 지방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뒤에 소수서원)을 세웠다. 주세봉의 묘는 특별한 시설이 없는 네모난 방형이며, 1976년 4월 15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조선후기 당시 통치이념으로서 확고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던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독창적인 학문세계를 전개하여 실학사상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던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묘(사진11)도 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3호로 지정(2002.9.16.)되어 있다.

3세에서 9세 선조들의 단소와 비석은

편집국장 권행완



서희장군(942~998) 묘소(사진1,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후리 산53-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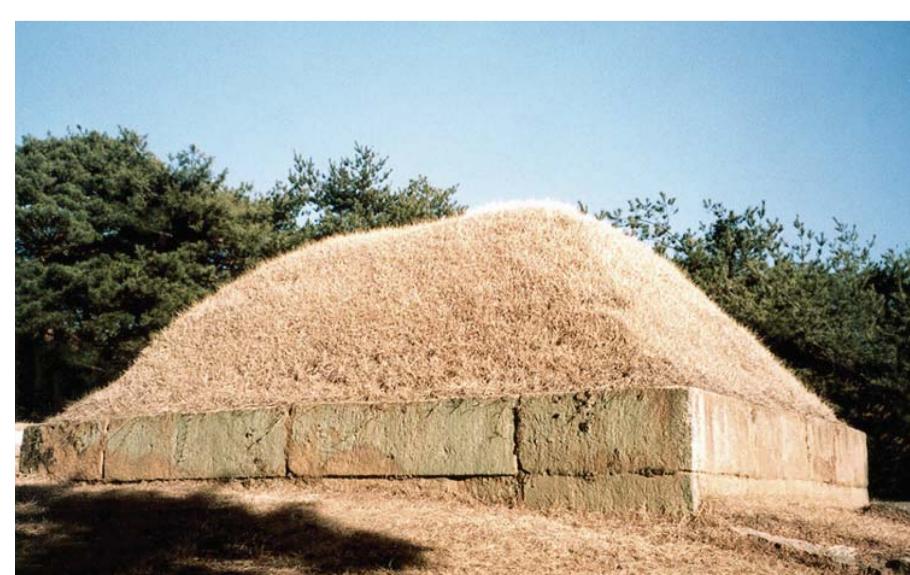
서희 장군 아버지 서필(901~965)의 묘소(사진2,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후리 산53-1번지)



서육신 박팽년의 조부 박안생(?~1439)의 묘소(사진4,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정리4)



문익점(1329~1398) 묘소(사진5,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최윤덕(1376~1445) 장군 묘소(사진7,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대산리 산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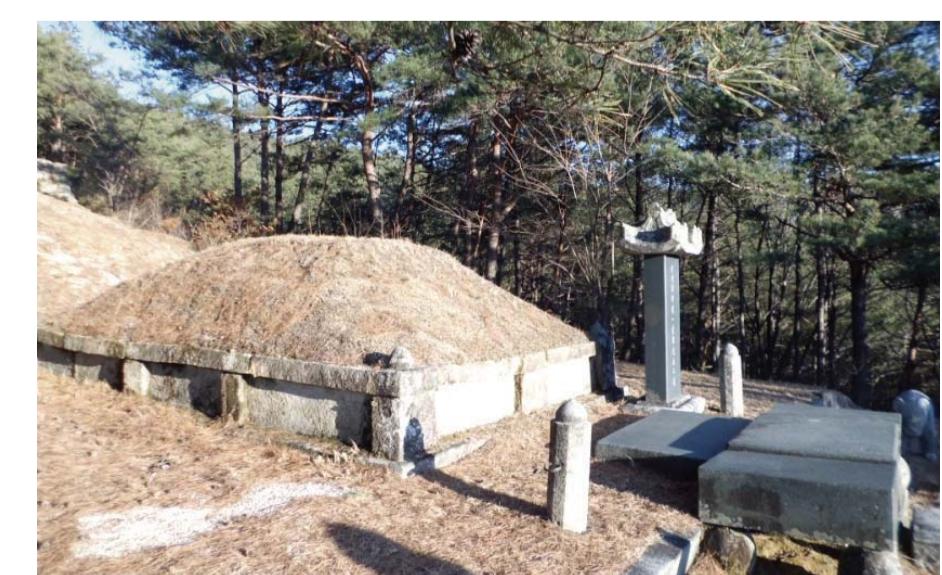
서계 박세당(1629~1703)의 묘소(사진11,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산146-1번지)



주세봉(1495~1554) 묘소(사진10, 경남 함양군 칠서면 계내리)



정간공 권희(1319~1405) 묘소(사진6,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원당역 부근)



일두 정여창(1450~1504) 묘소(사진9,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산10-9)